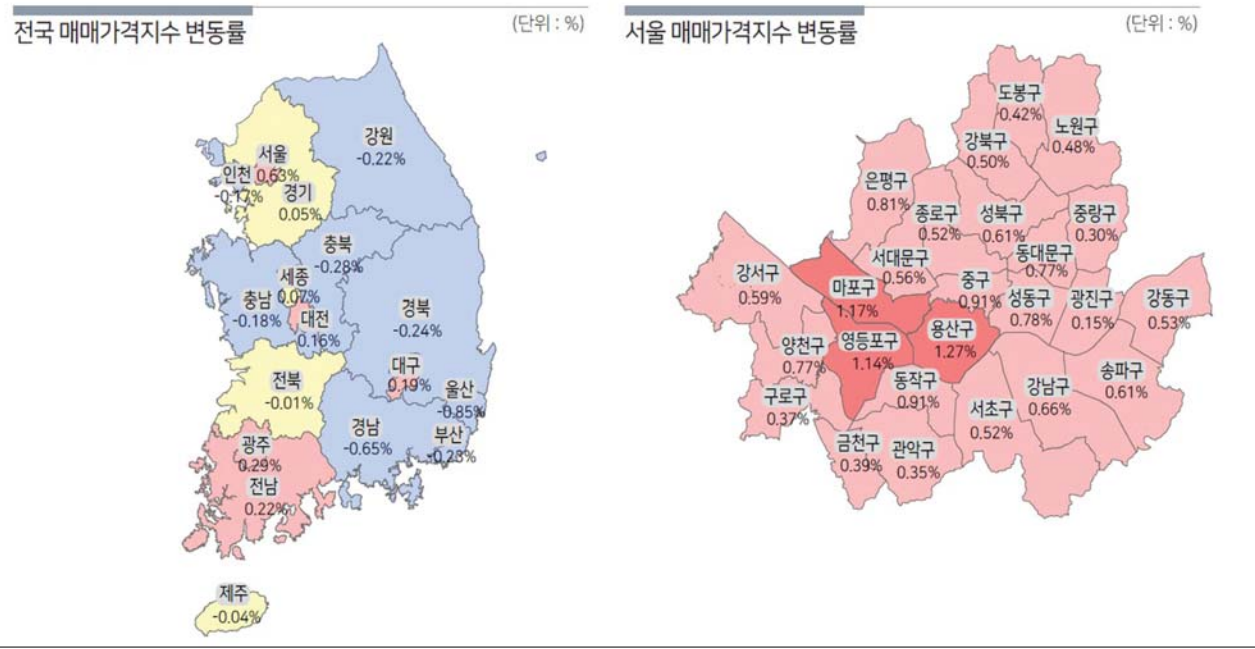


# 서울아파트 매매가 평균 7억 첫 돌파...지방과 양극화 심화

지역별 매매·전세·월세가격지수 지난달 대비 변동률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7억원을 첫 돌파했다. 반면 지방은 끝을 모를 추락을 거듭하면서 집값의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18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공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8월 한 달간 0.02% 상승하며 4개월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주택 매매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은 서울이다.

서울 집값은 지난달 0.63% 상승하며, 전월(0.32%) 대비 상승폭이 2배로 커졌다. 정부 보유세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

**8월 상승폭 '0.32→0.63%'...전월비 2배로 확대**

**용산·마포·영등포 등 월간 1%대 높은 상승률**

**지방은 침체 지속...아파트 평균매매가 0.30% ↓**

되고, 서울 전역에서 호재성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을 자극한 탓이다. 용산(1.27%), 마포(1.17%), 영등포(1.14%), 중·동작(0.91%)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감정원은 "강북은 다양한 개발호재, 직주근접, 저평가 지역 등에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강남도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적가매물 소진, 매수문의 증가로 그동안 낙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기(0.05%)도 교통·정비사업 호재의 영향으로 전월(보합) 대비 상승세로 전환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의 8월 아파트 평균주택가격은 7억288만원으로 전월 대비 6억 9598만원 대비 0.92% 상승했다. 조사표본 아파트(1만5886호) 중 서울 지역의 단순 평균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사표본을 재설계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이 7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주택가격(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가격)도 같은 기간 6억6642만원에서 6억7208만원으로 0.85% 상승했다.

반면 지방은 여전히 경기가 위축된 상태다.

광주(0.29%), 전남(0.22%), 대구(0.19%), 대전(0.16%) 등 주거 선호도 높은 지역은 상승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8월 한 달간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울산(-0.85%), 경남(-0.65%), 충북(-0.28%), 부산(-0.23%) 등 순으로 낙폭이 컸다. 세종(0.29→0.07%) 등도 상승세가 한 풀 꺾였다.

지방 아파트값도 같은 기간 평균 2억320만원에서 2억258만원으로 0.30% 떨어졌다. 전월세 시장도 서울과 지방간 온도차가 크다.

전국 전셋값은 8월 0.20% 하락했

지만, 서울 집값은 0.20%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초(1.03%) 등 정비사업 이주 수요와 방화 이차철 영향으로 상승세가 컸다.

상승폭은 전월(0.06%) 대비 4배 수준이다.

반면 지방(-0.24→-0.27%)은 하락폭 확대됐다. 울산(-1.13%), 경남(-0.50%) 지역의 침체와 부산(-0.30%)·강원(-0.33%)·충북(-0.31%) 등은 신규공급 등의 영향이다.

월셋값은 서울(0.03%)이 전월 대비 상승세로 전환한 반면, 지방(-0.19%)은 낙폭이 커지며 전국은 0.12% 하락했다.

뉴스스

## 치솟는 서울집값...좌절하는 20~30대



강남에 이어 강북 집값까지 들쭉이면서 청년들이 서울에서 거주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부동산 산14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은 0.57% 올라 지난 2월 첫째 주에 이어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구(0.37%), 종로(0.36%), 강동

(0.26%), 강북(0.26%) 등 전세가격도 덩달아 오르며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 커녕 서울에 전셋집을 구하기도 힘들어졌다.

회사원 유도균(27)씨도 송파구 오피스텔에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6만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다. 유씨는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면

보증금 1억~2억은 기본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돈을 갖고 있는 젊은 층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청년들이 서울에 살면 월급의 상당부분을 월세로 내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게 된다"고 말했다.

유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신축도 아니고 주거환경이 좋은 편도 아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할어 주거비에 털어넣지만 주거 만족도도 바닥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국토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청년가구(가구주 연령 만 20~34세) 가운데 임대료부담과 가구 규모는 26.3%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임대료부담과 가구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청년 4명 중 1명이 높은 임대료에 시달린다는 얘기다. 이중 절반 이상인 69%가 월세를 내며 산다.

서울 입성을 아예 포기하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안양에 사는 김모(27)씨는 "용인에서 40평 아파트에 살던 친구가 잡실 15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전기가 자주 나간다고 하더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아 서울로 갈 생각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지취하려고 알아봤는데 보증금도 너무 비싸고 월세로 들어가면 월급의 반 이상이 나간다"며 "서울에서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주거 관련 금융지원 정책을 찾아보는 청년들도 많지만 수혜지는 적

다. 인천에 사는 윤모(28)씨는 최근 회사와 가까운 동대문구 회기동에 보증금 1000만원,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 50만~60만원 짜리 집을 구했다. 월세를 내면 돈을 모으지 못할 것 같아 처음에는 정부의 전세지원제도를 찾아봤다. 하지만 지원 요건이 생각보다 엄격해 눈물을 머금고 발길을 돌렸다.

윤씨는 "보증금을 부모님이 지원해줄 정도로 부유하진 않은데도 주거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원받기도 감당해야 할 비용이 컸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 대상이 최근 확대됐지만 여전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청년가구

중 임대료부담과 가구의 31.1%가 월세 보조금 지원, 27.8%가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바랐으나 실제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률은 6.5%에 머물렀다. 청년 대부분이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전세자금 지원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정모(28)씨는 "전세금을 낼 정도로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기존 제한에 걸려서 혜택도 없고 그렇다고 내 돈 모아서 서울에 집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며 "정책을 뒤져봐도 신혼부부가 아니면 사실상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 집을 알아보 기 시작한 나 같은 청년들이 정책 시각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